

# 포스코에 민주노총 노조 생겼다… “용광로 꺼지는 일 없길”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지도부 선출  
직원들 사이 우려 목소리 커져  
철강업 파업땐 노사 양측에 손실

포스코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출범한 가운데 직원들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철강업은 업무 특성 상 24시간 가동돼야 하는데, 파업을 하게 될 경우 노사 양측에 주는 손실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17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를 출범시켰다.

포스코지회는 지난 16일 설립총회에서 금속노조 지회 모범 규칙을 기반으로 지회 규칙을 제정하고 지도부를 선출했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5고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모습

/연합뉴스

다. 이들은 포스코 광양·포항 공장을 아우르는 통합 지도부다.

포스코가 1968년 포항종합제철로 출발한 이후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생긴 것은

처음이다. 포스코에는 ‘노경협의회’와 별도로 조합원 9명이 가입돼 있는 기업노조인 ‘포스코 노조’가 있었다.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은 포스코 기

존 노조의 재건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한국노총이 재건할 노조의 복수노조 체제가 될 전망이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지회와는 달리 한국노총은 기존 노조를 단위로 노조로 재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산별 노조 산하 지회의 교섭권은 산별노조가 갖고 이를 지회에 위임할 수 있지만 단위 노조는 독자적으로 교섭권을 행사한다.

포스코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노조가 설립돼 1만7000여 명에 달하는 직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포스코 노조는 금속노조에서 현대차·기아차 노조에 이어 세째로 조합원 수가 많은 정규직 노조가 된다. 이 때문에 재개는 포스코 노조 설립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포스코 직원들 사이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스코 직원 A씨는 “다른 제조업과 달리 철강업은 파업으로 용광로가 꺼지고 쇳물이 나오지 않으면 노사 양쪽 주는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자체 노조는 몰라도 민주노총 산하 강경 노조가 생기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직원이 많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1987년 설립 당시 2만 4000명이었던 노조가 비리행위로 해산된 일을 두고 현 노조 출범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17일 서울 포스코센터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새노조와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 회장은 “(노조와 언제 만날지) 계획은 없다”면서도 “아직 설립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설립 이후에는) 당연히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 “VOD 콘텐츠 라인업으로 매출 3배 증가”

KT스카이라이프 ‘Sky A’ 등 론칭

KT스카이라이프는 올해 7월 주문형비디오(VOD) 이용자수와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6배, 3배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4월 지상파 VOD 콘텐츠를 수급하고 해외 6대 메이저 배급사의 영화 등 컬러 콘텐츠를 확보해 약 5만편의 VOD 콘텐츠 라인업을 완성했다. 지난 5월에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초고화질(UHD) 방송 상품 ‘Sky A’를 론칭하기도 한 바 있다.

한편, KT스카이라이프는 추석 연휴를 맞이해 VOD 특별관과 함께 경품 이벤트를 준비했다.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추석 특별관을 통해 ▲미션임파서블(풀아



웃) ▲공작 등 최신 인기 영화를 3편 이상 시청한 고객에게 10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i@

## LG전자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휴대폰’ 서비스

LG전자가 서비스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휴대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정식 서비스로 스마트폰 방문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은 국내에서 LG전자가 처음이다.

LG전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이 서비스를 17일부터 시작한다.

» 1면 ‘흔들리는 IT코리아…’서 계속

## 2분기 판매 13% 감소 ‘경고등’

업계에서는 애플이 독자적으로 가장 우수한 연산능력을 갖춘 핵심칩 A시리즈를 만들고 잘 짜여진 독자 운영체제인 iOS로 경쟁력을 갖춘다. 삼성은 AMOLED 디스플레이와 메모리, SSD 같은 하드웨어에만 편중된 것이 원인이라 지적한다. 다른 곳에도 공급되는 하드웨어에 의존한 경쟁력은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독특한 사용자경험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2012년 샌드위치 게임에서 승자로 올라섰음을 선언한 이건희 회장은 “정말 앞으로 몇 년, 십년 사이에 정신을 안 차리

고 있으면 금방 뒤진다. 선진국을 따라가고, 우리가 앞서가는 것도 몇 개 있지만, 더 앞서가야 된다”는 경고를 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이런 경고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어 국내 산업계에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삼성이 운영체제(OS)를 가지지 못해서 생긴 경쟁력 부족이 원인”이라면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독점적인 스마트폰 사용자경험을 구축해야만 프리미엄 제품 입지를 확고하게 굳힐 수 있다”고 말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배터리·모터·첨단주행기술·실내공간…

## 소리 없이 빠르다, 똑똑하면서 알차다



기아자동차 ‘니로EV’

누적 계약 대수 8500대 돌파

1회 완충으로 ‘385km’ 주행 인증



기아차 니로 EV 주행모습.

다이얼 방향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D, 왼쪽은 R, 중앙 버튼을 누르면 P에 놓을 수 있다.

실내공간은 경쟁 모델(현대차 코나 EV, 쉐보레 볼트 EV)과 비교해 가장 넓다. 전폭은 1805mm, 실내 공간의 크기를 결정짓는 휠베이스는 2700mm로 준 중형 SUV인 투싼보다도 30mm나 길다.

덕분에 뒷좌석은 키 177cm 성인이 편안히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여유있다.

트렁크는 SUV답게 451L로 2열 좌석을 접으면 1405L 수준의 적재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주행 성능은 기아차의 자신감을 재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만족스러웠다. 2000cc 디젤 승용차 수준을 뛰어넘는 동력 성능을 경험할 수 있다. 가속 능력으로만 보면 제로백이 7.6초대로 가속감은 뛰어나다. 전기차답게 가속 시 엔진 소음이나 진동이 전혀 없어 주행시

받는 스트레스도 줄어들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정차와 재출발이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의 첨단 편의 사양은 주행의 부담을 완벽하게 줄여준다.

특히 고속 구간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활용화시키자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는 물론, 단속 구간에서 스스로 속도를 줄인다. 또 안정적으로 차선을 유지해 마치 자율주행을 경험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다. 운전자의 다리와 손이 한층 여유로워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니로 EV는 64kWh 배터리를 기본으로 2개의 트림으로 운영되며 가격은 ▲프레스티지 4780만원 ▲노블레스 4980만원이다. 서울 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 ▲프레스티지가 3080만원 ▲노블레스는 328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기아차 니로 EV 실내모습.